



최종오 익산시 의원, '바르게살기운동 감사장' 수상

익산시의회 최종오 의원(모형 송학)이 지난달 28일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익산시협의회 송년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경찰청장(치안감 최종문) 감사장'을 수상했다.

최종오 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에 적극 활동하며 치안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9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종오 의원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과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평소 바르게살기운동 실천을 위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익산경찰서의 역할에도 적극 협조해 오고 있다.

최 의원은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변하지 않으므로 바르게 살기 위한 자세를 견지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한편 이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남원 왕정동 지사협, 이마트 남원점 김장김치 나눔

남원시 왕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달 28일, 이마트 남원점의 후원으로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 및 경로당에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마트 남원점은 2016년부터 매년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후원해 왔으며, 올해도 김장김치(3.5kg) 25박스(환가액 350만원)를 왕정동에 후원했다.

이에 왕정동은 동 맞춤형복지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통장 독거노인 생활 지원사와 함께 저소득 소외계층 및 경로당에 김장김치를 전달하며 동절기 한파 대비 행동 요령 등 안전 수칙을 안내하였다.

특히 어르신은 "김장김치를 지원받게 되어 마음이 든든하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진장축협, 2년연속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

지난달 28일 무진장축협(조합장 송제근) 임직원들의 자발적 동참, 고향사랑기부금 240만 원을 무주군에 전달했다.

이날 무주군청에서 황인홍 군수와 송제근 조합장, 이해근 무주지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송제근 조합장은 "무주를 응원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라며 "작은 성의지만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주신 무진장축협 임직원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 금산면, 출생가정에 자매도시 완도 미역 선물

김제시 금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 사회의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면민들의 건강한 출산을 격려하기 위해 출생가정에 완도 미역을 선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금산면 이장협의회(회장 배성철)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움직이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생가정에 제공되는 미역은 금산면과 자매결연을 맺은 완도 금일읍에서 생산된 미역으로, 식감이 부드럽고 영양이 풍부하여 산모들이 특히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성철 이장협의회장은 "어릴 적에는 아이들의 활기가 넘쳤던 동네지만, 하나 둘 폐교되는 학교들을 보며 많은 안타까움이 느껴진다"며 "아이 울음소리가 가득한 고장을 되찾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발 벗고 나서겠다"고 후원 소감을 밝혔다.

김병철 금산면장은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해 적극 동참해준 배성철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이장협의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제=곽도태 기자

교류·나눔 'MY JB 마음 나눔 프로젝트'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도민·외국인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열어

전북국제협력진흥원(원장 김대식)은 지난달 28일 도내 외국인과 도민이 함께하는 따뜻한 교류와 나눔의 자리인 'MY JB 마음 나눔 프로젝트'를 개최했다.

대만,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중국 등 도내 거주 외국인과의 전북 공공외교단 등 도민 약 40명의 참가자는 김장 체험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하며, 직접 담근 김치를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다.

도민이 직접 도내 외국인에게 김장 담그는 방법을 알려주며 음식을 매개로 상호 소통하고, 외국인 참가자들은 김장을 배우고 체험하며 한국 전통 음식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함께 만든 김치 약 60kg는 전주 소재 '소망의 집 그룹홈'에 전달하며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에 동참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베트남 유학생은 "TV로만 보던 김장을 직접 체험하게 되어 신기했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도민들과 교류하는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도민은 "외국인 이웃과 함께 김장 체험을 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라고 말하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김대식 원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외국인과의 도민이 하나 되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통합과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O만호기자

남원시, 연말연시 맞아 희망 나눔 캠페인 본격 시작

남원시 주민복지과는 연말연시를 맞아 '기부로 나를 가질 있게, 기부로 전복을 가질 있게'라는 슬로건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희망나눔캠페인을 12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진행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나눔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할 계획으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고 남원시가 후원하며 각 읍면동과 민간단체가 협력 추진된다.

캠페인에는 누구나 동참할 수 있고 시청 주민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부금을 접수하며, 올해 캠페인은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고 공동체의 따뜻한 가치를 되새기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나눔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시청 주민복지과(063-620-6333)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이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남초, 전통문화 행사... 지역사회 문화 교류 활발

부안남초등학교(교장 정한상)에서는 지난달 28일 남초등학교생과 부안효동마을주민과 완주군 두억마을의 주민 100여명이 특별한 문화 교류 행사에 참여했다.

이 행사는 완주군 문화도시지원센터 주관으로 부안군 효동마을과 완주군 두억마을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간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통문화를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부안남초등학교는 전통한예문화 보존 고장이며, 완주군 두억마을은 지계기막 공연과 과거시합을 재현하는 문화 보존마을이다.

부안남초등 학생들은 두억마을에서 준비한 지계기막 공연, 과거시합 재현, 호패 제작, 짚을 이용한 허수아비 인형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했다.

특히나 과거시합 재현행사를 유복 차원으로 과거시합장에 입장해 과거시합의 전과정을 해설과 체험으로 실제 시제를 해결하는 등 옛 선현들의 전통인사절과 선비문화를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



이번 문화 교류 행사가 두 마을 간의 협력이 지역 문화의 다양성과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학생들은 "과거시합이 이렇게 어렵고도 재미있을 줄 몰랐다"며 "우리 전통문화에 대해 더 관심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서남상공회의소,기업체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실시

전북서남상공회의소(회장 최종필)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기업체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을 실시했다.

산업시찰은 모범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근무 환경에서 잠시 벗어나 선진기업 견학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해 매년 상공회의소가 주관해 실시하고 있다.

최종필 회장은 "그동안 산업전선에서 열심히 일해준 근로자들에게 감사하며, 각 기업체에서 모범근로자로 선정된 만큼 자부심을 갖고 산업시찰을 통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시찰 일정은 '오리온 제주 용암수'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시찰과 함께 지역 일대를 돌아보고 오는 2박3일 일정으로, 25명이 참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협 무주군지부 등, 설천 지전마을 가꾸기 실시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지부장 김범석)와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관)은 지난달 28일 무주군 설천면에 위치한 지전마을을 방문해 마을가꾸기 사업을 위한 지원금 1,700만원을 전달했다.

지원금은 지전마을을 경관개선과 관광 공간조성을 위해 벽화, 폐창고 외관보수, 돌담길 벤치 설치 등에 사용 될 예정이다.

김범석 지부장은 "돌담길이 아름다운 지전마을이 이번 마을가꾸기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우리 농업·농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공간 정비 및 가꾸기 사업'은 농촌공간의 정주여건 개선과 공간 재생으로 농업인이 살고 싶고, 도시민이 가고 싶은 농촌공간 구현 사업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 동동 지사협, 취약계층 대상 밀반찬 지원



남원시 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동장 소선자, 민간 김희만)는 지난달 28일, 1일 1가구 소동행정을 통한 가정방문에서 발굴한 한파 취약계층 17가구를 대상으로 따뜻한 국물과 밀반찬을 전달하고, 동절기 한파 대비 안전점검 및 전열기구 등의 화재예방 안내와 안부를 살폈다.

특히 이번에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밀반찬뿐만 아니라 뜨끈뜨끈한 국물까지 직접 전달하면서 취약계층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어르신 한 분은 "손수 동장님이 추위를 녹일 따뜻한 국과 반찬을 갖다주시고, 안전 점검까지 해주니 도통동에 살아 호감하는 것 같다"라며 미소를 보였다.

동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고 보살피는 데 힘써 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특화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한편 소선자 동장은 "한파 대비 취약계층의 안부를 집중적으로 살피니 어르신들이 안전한 도통동에 사는 것 같으며 너무 좋아신다며, 민간과 공공의 소통·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는 든든한 지역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비전대, '졸업생 취업캠프' 후원연수원서 진행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취업업체(처장 박식훈)의 주관으로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기업이 요구하는 핵심인재양성을 위한 '2024년 졸업생 취업캠프'를 경기도 파주에 있는 홍원연수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행사에는 3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으며 개별로 입사서류 컨설팅을 진행하며 입사서류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희망 기업 및 직무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창의적으로 제공하는 등 학생이 반드시 취업할 수 있게끔 특화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학생들이 서로 모의 면접을 해보는 시스템을 활용해 면접관을 해보면서 다른 학생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 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명지전문대학 박담회를 참석하여 현대자동차, 기아, 삼성전자 등에 다양한 기업 현직자들을 만나 기업 입사서류와 면접 진행에 대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 등을 주고 받았다.

행사를 기획한 취업지원실 신재훈 취업프로그램팀장은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 취업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이번 취업캠프는 △대기업 취업 특강 △면접 실습 △이력서 컨설팅 △이력서용 무료 사진 촬영 △취업 타로 △퍼스널 컬러 진단 △체험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박식훈 취업업체장은 "올 한 해에도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채용 행사, 졸업생 캠프 등 다양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밀도있게 추진하여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군산영광교회, 저소득 고3 수험생 정장 지원

군산영광교회(담임목사 임용섭)는 28일 흥남동에 거주하는 관내 저소득 고3 수험생 6명에게 정장 상품권을(1인 20만 원 상당)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관내 고3 학생들이 졸업식 및 취업을 위한 면접 시 정장을 입고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상품권을 받은 흥남동의 한 수험생은 "생각지도 못한 응원과 정장꾸준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영광교회 임용섭 목사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에 첫발을 내딛는 수험생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를 많은 고민 후에 준비했다"라며 모든 수험생들에게 큰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영광교회는 지난 1975년 영광학원 강당에서 설립돼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지역내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식료품 꾸러미 기탁, 저소득 모자 가족을 위한 장학금 기부 등 이웃사랑을 실천해 지역사회의 규감이 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